

**IFES**

# 뉴스레터

2025년 9/10월호

IFES NEWSLETTER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IFE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뉴스레터  
34호(9/10월)  
목차**

### 연구활동

---

1. 학술활동	03
2. 교수진 연구활동	11
3. IFES 브리프 및 포럼	20
4. IFES AI 아카데미	26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29

### 연구소 소식

---

1. IFES 동정	36
2. 언론 속의 IFES	39
3. IFES 도서관	44
4. 예정사항	46
5. 안내사항	47



# 연구활동

학술활동

교수진 연구활동

IFES 브리프 및 포럼

IFES AI 아카데미

북한·국제 정세 동향





# 1. 학술활동

## 가.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주최, 동북아시아 싱크탱크 포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8월 26일(화) 09:30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주최 「제 9회 동북아시아 싱크탱크 포럼(대주제: 길림성과 함께하는 동북아의 미래: 새로운 지역 협력의 비전)」에서 발표했다.

동 포럼에는 류리신(刘立新 Liu Lixin) 길림성 사회과학원장, 귀라인치양(郭連強 Guo Lianqiang) 위다아용(王大勇 Yu Dayong) 부원장, 리쉐(李雪 Li Xue) 대외협력처장, 왕휘이(王暉 Wang Hui) 조선-한국 연구소장, 양쉐펑(楊學峰 Yang Xefeng) 러시아연구소장과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심연북한연구소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이관세 소장은 “한중 공급망 협력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중 공급망 협력을 성공시키려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실행 로드맵 개발, 동북아 다자 협력 등이 요구된다”며 이는 “동북아와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을출 연구실장은 “디지털 전환시대, 한중 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국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중 양국은 기존의 FTA나 RCEP 같은 제도적 틀을 넘어, 데이터와 물류, 인재, 표준까지 하나로 엮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기업, 대학, 싱크탱크 등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만들어 한국과 중국의 주요 도시에 ‘디지털 트윈 허브’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길림성과 함께하는 동북아의 미래: 새로운 지역 협력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 무역 자유화와 동북아 지역 통합 ▲ 디지털 전환과 동북아 산업-공급망 협력 ▲ ‘빙상 실�크로드’와 동북아 해양 경제 협력 ▲ 길림성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 협력 ▲ 동북아의 문화 교류와 디지털 전환 ▲ 청년 인재 육성과 동북아 디지털 인문 발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 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 나. 제18차 삼청포럼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장  
“미북 대화 가능성 높지만 ‘비핵화’는 비현실적”, “러북 협력 강화와 한러 관계는 별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9월 15일 오후 7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제18차 삼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알렉산더 보론초프(Alexander V. Voronts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장이 ‘러·북 협력 강화와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론초프 학과장은 러북 관계와 관련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양자 관계가 전례 없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으며, “종전 이후 접촉 빈도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협력 수준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러시아 지원으로 북한 내 병원 건설이 재개되거나 러시아 내 김일성종합대학 분교 설립이 논의되는 등 보건·교육 분야의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미북 대화 전망과 관련해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북한은 비핵화 대화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는 미북 대화를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러북 간 협력 강화가 한러 관계에 직접적인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러 관계의 가장 큰 제약 요소로 “한국의 대러 국제제재 동참”을 지적했다. 발표 이후 포럼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 발표전문 보러가기



## 다. 한반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9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북한연구학회, KDB북한정책포럼, 중앙대 동북아개발협력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 시리즈 1: “북극항로를 이용한 남북 및 환동해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반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이상만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이사장, 홍양호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김형석 (사)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고문, 최용환 (사)북한연구학회장, 발표자, 지정 토론자 등 한반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관세 소장은 개회 인사를 통해 “북극항로를 이용한 남북 및 환동해 경제협력의 방향과 과제는 단순한 지역경제 차원의 이슈를 넘어,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주제인 ‘북극항로 구상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선술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북극항로는 운송거리 단축(30~40%) 비용 절감, 신 성장산업 기회 창출 등으로 한국은 물류 경제안보 기술 표준을 축으로 하는 ‘K-전략 삼각축’을 마련 공급망 안정성 확보, 남북 및 동북아 협력 강화, 친환경 안전기반 항로 개발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둘째 주제인 ‘북극항로의 경제적 기회와 환동해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황진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은 북극항로를 활용한 남북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중-러 협력과 항만 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북극항로 활용은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토론에서 ▲김미연 산업은행 연구위원은 경제 산업분야 ▲홍지영 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금융 개발협력분야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자원분야 ▲김종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방·안보분야 ▲강호구 중앙대 객원교수는 중국의 관점 ▲서정배 한국국원대 초빙교수는 남북 관계분야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을 통해 참석자 모두 ‘북극항로를 이용한 남북 환동해 경제협력의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연구소는 향후에도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시리즈로 한반도 전문가 세미나를 총 6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관세 소장 인사말>



<한반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1. 학술활동

### 라. 학술지(국·영문) 발간

#### 1) 『ASIAN PERSPECTIVE』 VOL. 49, No. 3, SUMMER 2025 (2025. 9. 1.)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8년 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출판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 < 주요내용 >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출판부에서 발행한 『Asian Perspective』 제49권 제3호(2025년 여름호)가 발간되었다. 본 호는 Project Muse(<https://muse.jhu.edu/issue/55481>)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본 호는 동남아시아-중동 관계 특별호 제1부를 수록한다. 본 특별호는 중동-동남아시아 상호작용에서 '초지역주의'와 '새로운 양자주의'의 개념적·실무적 상호보완성을 검토하며, 어떻게 유연하고 사안별 협력 채널이 구축되었는지, 그리고 주요 지역 행위자들—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제1부에는 특별호 서론과 함께, 장기간적 관점에서 본 아랍-투르크-페르시아권(ATP)과 말레이 세계 간 관계 탐구, 그리고 이 두 개념의 개념적·실용적 상호보완성과 중동-동남아시아 상호작용에서의 이론적 중요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정기 투고 논문 중 이번 호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 야간 조명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국-미얀마 관계와 그 복잡한 상호의존성에 대한 연구; 한국의 회고적 투표 맥락에서 코로나19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검토; 대만 정치에서 계급 분열이 영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낮은 중요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도서 심포지엄'에서는 TJ 청, 우라딘 E. 불가그, 마크 셀던의 『만리장성 너머의 중국 반란자: 문화대혁명과 내몽골의 민족 학살』(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3)에 대한 서평과 반응을 소개한다.

본 저널의 모든 과거 호(1977년부터 2025년까지) 및 특별호는 Project Muse(<https://muse.jhu.edu/journal/733>)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 『ASIAN PERSPECTIVE』 VOL. 49, No. 3, SUMMER 2025 목차

**Special Issue on Southeast Asia–Middle East Relations – Part 1**

Introduction: The Influence of New Bilateralism on Southeast 415

Asia–Middle East Relations and the Path to Deeper

Transregionalism

*Gürol Baba and Yew Meng Lai*

Arab–Turko–Persianate and Malay World Relations: 427

Past, Present, and Future

*Khairudin Aljunied*

The Novelty of Complementarity between Transregionalism and 451

New Bilateralism:

Southeast Asia–Middle East Affairs

*Gürol Baba and Yew Meng Lai***Russia and China**

The Impact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on Russian and 481

Chinese Foreign Policy in Central Asia

*Jeanne L. Wilson*

A Study on China–Myanmar Complex Interdependence Based on 503

Night–time Light

*Xiongguan Zhu, Lili Tan, and Wanshu Li***Politics in South Korea and Taiwan**

Retrospection and Vote Choice: 533

Evidence from Cross–Sectional Studies in South Korea

Sanghoon Park, Hyun–Hee Heo, Deok Hyun Jang, Won Mo Jang, and

*Jaeyoung Hur*

Socialism in Heart, Capitalism in Mind: 573

Class Cleavage in Taiwan’s Party Poli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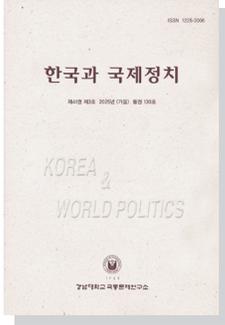
*John Fuh–sheng Hsieh***BOOK SYMPOSIUM**

Book Symposium on TJ Cheng, Uradyn E. Bulag, and Mark 595

Selden. 2023. *A Chinese Rebel beyond the Great Wall: The**Cultural Revolution and Ethnic Pogrom in Inner Mongolia.**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410 pp.**Peter C. Perdue**Christopher Atwood**TJ Cheng, Uradyn E. Bulag, and Mark Selden*

## 1. 학술활동

### 2) 『한국과 국제정치』 제41권 제3호 2025년 (가을) 통권 130호 (2025. 9. 30.)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변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1권 제3호 2025년 (가을) 통권 130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 목 차

- 부시 2기 대북 정책 전환의 이유: 미국 국내 정치적 설명  
- 하태원 (연세대학교)
-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조정 전망  
- 류인석 (영남대학교)
- 소수정부, 우월정당, 전략적 불안정: 일본 이시바 내각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조 (연세대학교) / 서한별 (연세대학교)
- 권위주의체제의 안정화 전략: 북한군의 비군사적 역할을 중심으로  
- 장석준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 곽은경 (통일부)
-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결정 사항 이행 과정과 평가: 당의 영도적 역할과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 김상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 국제정치』 2025년 (가을) 통권 130호 주요 내용 >

**하태원 연구자**는 조지 W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국내 정치 요인이었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부시가 추진한 정책 전환을 2단계로 나누어 보면 ▲1단계: 2004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뒤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국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콘돌리자 라이스를 국무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뤄졌고 ▲2단계: 국내 정치적 압력이 최고조에 이른 2006년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의 심판에 따라 이뤄졌다.

부시가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대북 정책 전환에 나서게 된 첫째 요인은 테러와의 전쟁 실패와 그에 따른 여론 악화, 의회와 언론을 위시한 전방위적 정책 전환 압박이다. 둘째 요인은 관료 집단 내 주도권 교체와 다자주의 접근 속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게 된 제도적 절차였다. 셋째 요인은 정책행위자들의 결단에 따른 정책 전환이었다. 특히 2004년 11월 대선과 부시 행정부의 기존정책에 대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내린 중간선거의 결과는 대외정책 전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국내정치 요인이 됐다.

**류인석 연구자**는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안보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미국이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하고,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북억제'에서 '대중견제'로 확대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프즘'으로 표출되는 대외정책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한미군의 재조정 가능성을 주한미군의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자'보다는 대중견제를 위한 '균형자'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더불어 '트럼프즘'의 영향에 따라 순환배치 또는 감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동맹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전면철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한미동맹의 전반적인 재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의 병력조정, 작전범위 확대, 운용방식 전환 등에 대비하여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성조·서한별 연구자**는 2024년 일본 중의원 총선 이후 등장한 이시바 내각을 사례로 소수정부의 형성 메커니즘과 생존 전략을 분석했다. 자민당은 장기간 일본 정치의 우월적 정당으로 기능해 왔으나, 아베 총리 사망 이후 정치자금 스캔들과 파벌 해체, 지방 조직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며 2024년 선거에서 중의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자민당 1강 체제'가 무너진 가운데, 우월적 정당의 구조적 하향 추세 속에서 선거적 손익과 정책 영향력을 고려한 야당의 전략적 계산이 소수정부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실제로 야당은 자민당과의 연립에 참여하지도 대안적 야당 연합을 구성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정권 참여의 비용을 회피하면서도 정책적 영향력을 높여 차기 선거를 도모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야당은 정부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하고,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정책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 1. 학술활동

동시에 정권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자민당 주도의 정부 결정에 대한 책임과 선거적 비용을 회피하는 한편, 차기 선거에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고, 야당의 정권 참여 유인을 한층 약화시켰다.

**장석준·곽은경 연구자**는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최고지도자가 군의 비군사적 역할을 활용하여 대중적 권위를 구축하고 체제 안정화를 달성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김일성-김정일,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두 차례 세습승계 사례에 대한 과정추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 군을 단순한 억압 도구가 아닌 체제 정당화의 협력적 주체로 전략적으로 활용해왔음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군의 비군사적 역할은 ▲위기 극복 역량 과시 ▲대중적 지지 확보 ▲군부 엘리트 결집이라는 세 가지 핵심 경로를 통해 체제 안정화에 기여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안정성이 강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협력적 방식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북한의 놀라운 체제 지속성이 군의 비군사적 활용을 통한 정교한 정당성 구축 전략의 산물임을 밝혔다.

**이지선 연구자**는 갈등전환이론의 관점에서 대외원조·개발협력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갈등감소 및 핵위협 관리를 위한 국제 지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신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대북개발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그리고 국제 담론 추적, 관련 사례 분석, ‘두 국가론’ 등장 배경 분석을 기반으로 제안된 ‘역설적 평화 접근’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통일·민족 목표 간의 분리다. 둘째) 국가 간 보편적 거래 방식에 기반 한 새로운 관계 수립 필요성이다. 셋째) 북측의 수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도주의와 비핵화 프레임보다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공동 번영을 주요 동기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교적 선행과제로서 주변 강대국과 글로벌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활성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제재 담론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양자협력 구도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제기구나 다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상범 연구자**는 제8차 당 대회에서 정치 분야 결정사항 중 하나인 당의 영도적 역할과 유일적 영도체계 강화를 위한 지난 4년 동안의 정책집행 이행 과정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제9차 당 대회의 정치 분야를 전망했다. 제8차 당 대회 정치 분야 결정 관철을 위해 북한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당-국가회의체의 주기적 개최였으며, 이를 통해 결정 관철을 위한 사업 점검, 총화, 검열, 지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을 지도사상 및 지도적 지침, 이론적 체계 구축, 온 사회의 일색화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정치·사상적 방어기제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에서 선대 지도자들의 유무형의 이론, 정치적 상징성을 퇴색, 제거하는 노력은 본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통해 북한 현실에 맞는 정치사상, 이론, 방법, 소위 바른 길을 찾았음을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당 대회에서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 혹은 김정은주의의 당 규약 상 명문화, 당의 유일영도체계의 변화,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원수 칭호 수여,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 2. 교수진 연구활동

### 가. 학술활동

#### 임을출 교수

- 1)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공동학술회의 지정토론  
- 일자/장소: 2025. 8. 22.(금)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회의실  
- 내용: 김정은 시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평가
- 2) 중국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한반도개발협력연구원 공동주최 '2025 한중포럼' 발표  
- 일자/장소: 2025. 8. 29.(금) / 중국 산둥대학 국제세미나실  
- 내용: 북한의 경제현황과 한중협력 방안
- 3)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최 제16회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발표  
- 일자/장소: 2025. 9. 22.(월) / 제주도 시리우스호텔  
- 내용: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북한의 관광비전과 남북지역 협력의 가능성

#### 김상범 교수

- 1) 통일부·북한연구학회 공동 주최 세미나 발표  
- 일자/장소: 2025. 9. 24.(수) / 코리아나호텔  
- 내용: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론을 제기한 북한의 향후 대남정책 변화 전망
- 2) 2025 북한연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  
- 일자/장소: 2025. 9. 25.(목) / 이화여대 포스코관  
- 내용: 적대적 두 교전국 관계론을 제기한 북한의 향후 대남정책 변화 전망

####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토론회 사회  
- 일자/장소: 2025. 8. 11.(월) / 서울 국제법연구원 회의실  
- 내용: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 책임에 대한 권고적 의견 제시 그 의미와 활용 방안
- 2)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 사회  
- 일자/장소: 2025. 8. 22.(금) / 프레스센터 19층 회의실  
- 내용: 기후 변화 방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강화

## 2. 교수진 연구활동

- 3)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APEC 문화산업 고위급 대화 주재
  - 일자/장소: 2025. 8. 27.(수) / 경주 힐튼호텔
  - 내용: (제3세션) 회원국 간의 협력 강화 방안
- 4) 평택 평화포럼 세션 주재
  - 일자/장소: 2025. 9. 18.(목) / 평택 메리어트 호텔
  - 내용: 한·미·일 협력회의 주재
- 5)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전문가 세미나 토론
  - 일자/장소: 2025. 9. 25.(목) / 국립외교원 세미나실
  - 내용: 강대국 정치 극복 위하여 경제 군사 기술 3대 능력 증강 필요

### 김광운 초빙석좌교수

- 1) 중국 길림대학 주최 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투쟁 승리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강연
  - 일자/장소: 2025. 8. 25.(월) / 장춘
  - 내용: 동북항일연군의 국내외 '우의' 형성과 1945년 이후 전쟁과 평화에의 영향



韩国庆南大学远东问题研究所



### 최영준 초빙교수

- 1) 통일과 나눔 주최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지정토론
  - 일자/장소: 2025. 8. 27.(수) / 코리아나호텔
  - 내용: 독일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2)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
  - 일자/장소: 2025. 9. 12.(금) / 국민대학교
  - 내용: 미중 대결 심화 속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 3) 통일부 주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발표

- 일자/장소: 2025. 9. 19.(금) / 포시즌스 호텔 서울
- 내용: 한반도 정세와 통일방안 개선방향 모색

#### < 한반도 정세와 통일방안 개선방향 모색 주요내용 >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일상화되어 있는 지금도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적절함. 첫째) 통일은 장기적 과정이기에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고, 특정 정권을 넘어 일관되게 추진할 목표인 만큼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둘째) 가장 중요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와 동의 확보를 위해서도 통일의 설계도는 중요함.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도 가해져 왔음. 북핵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성 안된 만큼 고도화된 북한 핵문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주의적 한계 때문에 평화체제 등 정치 군사적 해결책을 도외시키고 있고, 글로벌 시대의 젊은 세대에게 민족공동체 개념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지적도 제기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내용적 비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 무관심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통일방안 재정립 프로젝트가 다시 활성화되어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

### 이상만 초빙교수

#### 1) 중국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 세미나 발표

- 일자/장소: 2025. 9. 13.(토) / 국제문제연구원 회의실
- 내용: 북핵안보시대 한국 신정부의 리스크 관리와 한중관계발전 모색

#### 2) 중국 상해정법대 석박사과정생 대상 특강

- 일자/장소: 2025. 9. 17.(수) / 상해정법대학
- 내용: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북핵안보시대의 한중관계

## 2. 교수진 연구활동

### 3) 중국 산둥재경대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상 특강

- 일자/장소: 2025. 9. 17.(수) / 산둥재경대학
- 내용: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 리스크 관리와 한중관계 발전 전망



< 산둥대 세미나 >



< 상해정법대 특강 >



< 산둥재경대 특강 >

### 선술기 초빙연구위원

#### 1) 한양대 평화연구소 논문 등재(KCI 2025, Vol.12 No.2, pp.125~155)

- 일자: 2025. 6. 23.(월)
- 제목: 북한 시장화와 신흥부유층의 소비문화 변화: 중국사례 비교를 통한 발전 경로 전망

#### < 북한 시장화와 신흥부유층의 소비문화 변화 주요내용 >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본격화된 시장화 과정 속에서 등장한 신흥 부유층 돈주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후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자생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노동·주택·사금융 등 다양한 비공식시장의 등장과 함께 경제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자본을 축적한 일부 주민들이 돈주로 불리는 신흥 계층으로 부상하였고, 고급 소비재와 명품을 중심으로 외형적 과시소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소비문화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단순한 생활수준 향상이 아닌 사회적 지위 표현과 계층 구별의 수단으로서 소비가 기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립된 과시소비이론과 소비자이론을 사회주의 국가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중국의 사례를 토대로 북한 소비문화의 향후 변화를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전망하고자 한다.

#### 2) 칭다오 민주평통 외 5개 기관 공동 주최 한반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발표

- 일자/장소: 2025. 8. 28.(목) / Brigh Radiance GulfHotel YanTai 국제회의실
- 내용: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와 미래과제

### <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와 미래과제 주요내용 >

본 발표는 한반도 통일 환경 변화를 국제정세 변화, 북한의 변화, 한국 세대 간 통일 인식 변화라는 세 축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미래 과제를 도출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WTO 체제에서 트럼프 라운드로의 변화, 지역 간 갈등의 심화 등이 주요변화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북·러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시장화 확산을 통해 체제 생존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민족·역사적 당위성보다 실질적 효용과 기회를 중시하는 새로운 통일관이 부상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기존의 민족 동질성 담론을 넘어, 경제적 기회와 평화의 실질적 가치에 기반한 점진적 협력, 다자외교를 통한 전략적 균형, 세대별 인식 차이를 반영한 실용적 정책 설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나. 언론활동

### 임을출 교수

#### 1) YTN 뉴스 인터뷰

- 김여정 “북미정상, 관계 나쁘지 않아”...대화 재개될까? (8. 2. 토)
- 대화 분위기 조성하는 한미...북 화답할까? (8. 10. 일)
- 북, 황성기 호응 이틀 만에 한미훈련 반발...강온 양면 대응 (8. 11. 월)
- 북, 새 정부 향해 "허망한 개꿈"...황성기 철거도 반박 (8. 14. 목)
- 내일부터 한미연합훈련...북, 대응 나서나? (8. 17. 일)
- 김정은, 한미훈련 비판하며 핵무력 강조...대화 손짓 '외면' (8. 19 화)
- 북, MDL 경고사격에 반발...“계속하면 대응 조치” (8. 23. 토)
- 북중러 회담 열릴까?...3국 온도 차 뚜렷 (9. 1. 월)

## 2. 교수진 연구활동

---

- 북 "ICBM 신형 엔진 개발 마무리...중대 변화" (9. 9. 화)
  - 대남 공작기구 확대 개편...북 노림수는? (9. 21. 일)
  - 김정은 '핵 인정' 요구에 한미일 '북 비핵화' 재확인 (9. 23. 화)
- 2) 연합뉴스 TV 뉴스 인터뷰 (2025. 8. 20. 수)
- 김여정 "이재명, 역사 흐름 바꿀 위인 아냐"...대통령실 "유감"
- 3) 채널A 뉴스 인터뷰
- 김여정 "李, 역사 흐름 바꿀 위인 아냐"...대통령실 "진정성 왜곡" (8. 20. 수)
  - 김정은 열차 앞 흡연 사진 공개...北, 출발 직후 이례적 홍보 (9. 2. 화)
  -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완공 늦다"...한밤중 질책 (9. 24. 수)
- 4)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 "이재명은 역사 흐름 바꿀 위인 아냐"...냉랭한 북한, 의도는? (8. 20. 수)
  - '비핵화' 언급 없는 북·중·대화 문턱만 높이는 김정은 (9. 5. 금)
  - 北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조현 방중 '중국 비핵화 역할' 강조 (9. 15. 월)
  - [뉴스추적] APEC 때 판문점서 북미대화 성사되나 (9. 22. 월)
- 5) KBS 뉴스9 인터뷰
- 북한 "남측이 경고사격 도발"...합참 "군사분계선 침범에 조치" (8. 23. 토)
  - 주애, 12세에 외교무대 데뷔...전세계에 '후계자' 이미지 부각? (9. 3. 수)
  - 북한판 CNI?...“핵·재래식 병진정책 제시할 것” (9. 13. 토)
  - [클로즈업 북한] 기록영화 보니...글로벌 리더로 우뚝? (9. 13. 토 / 남북의 창 출연)
  - 이재명 대통령 유엔 데뷔전과 APEC 전망 (9. 25. 목 / 열린 토론 출연)
- 6) 경향신문 인터뷰
- 경주 APEC 계기로 김정은·트럼프 재회할까...한·미 정상, 북·미 대화 공감대 (8. 26. 화)
  - 김정은 “핵·재래식 무력 병진”...국방력 발전 노선 왜 바꾸나 (9. 13. 토)
- 7) 중앙일보 인터뷰 (2025. 9. 5. 토)
- 김정은, 핵·경제 다 챙겼다...복잡해진 한·미 대북 셈법
- 8) 일본 홋카이도신문 칼럼기고 (2025. 9. 2. 화)
- "이재명 정권의 한반도 평화와 글로벌평화공존을 향한 새로운 희망 (李在明政權の朝鮮半島平和とグローバル共存に向けた新たな希望)"
- 9) 일본 NHK 뉴스 인터뷰 (2025. 9. 9. 화)
- 北朝鮮 ICBM搭載エンジンの燃焼実験 炭素繊維で軽量化実現か

- 10) K-TV 특별생방송 출연 (2025. 9. 26. 금)  
- 이재명 대통령 제80차 유엔총회 참석 의미와 성과는?

### 조진구 교수

- 1) 뉴스1 인터뷰  
- 지지율 오른 이시바 만나는 李...한일관계 개선 동력 다시 탄력 (8. 13. 수)  
-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내놨지만...이시바 '과거사 호응'은 과제로 (8. 24. 일)
- 2) cbs 뉴스 인터뷰 (2025. 8. 25. 월)  
- 한일 정상회담, 과거사 논의 부재에 아쉬움도

### 이병철 교수

- 1) 신경제신문 칼럼기고  
- 전쟁은 실수로 시작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비경쟁이 아니라 군비통제다. (8. 8. 금)  
\* (칼럼 전문) <https://www.theneweconomy.kr/news/articlePrint.html?idxno=13994>  
- 트럼프 대통령을 길들인 '예의'의 기술 (8. 29. 금)  
\* (칼럼 전문) <https://www.theneweconomy.kr/news/articlePrint.html?idxno=14091>
- 2) 중앙일보 인터뷰  
- 李, 트럼프 만나 직접 제안하나...정부,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8. 21. 목)  
- 미국은 현금, 한국은 신뢰 챙겼지만...'거친 거래' 안 끝났다 (8. 28. 금)  
- '비확산 철칙' 공약이 관건...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전망은 (9. 1. 월)  
- 외교장관 만난 기업인들 "비자 확대하고 기준 명확히 해달라" (9. 10. 수)

### 김상범 교수

- 1) KBS 인터뷰 (2025. 8. 12. 화)  
- "국민 64% 안보상황 불안...북한 관광에 56% 찬성"
- 2) 경향신문 인터뷰 (2025. 9. 25. 목)  
- 최선희 북한 외무상 내일 첫 '단독 방중'

## 2. 교수진 연구활동

### 곽태환 초빙석좌교수

- 1) 브레이크뉴스 특별기고
  - 이재명-트럼프 첫 한미정상회담 '6대 핵심의제' (8. 10. 일)
    - \* (특별기고 전문) <https://www.breaknews.com/1139302>
  - 한국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과 한미동맹 현대화 (8. 19. 화)
    - \* (특별기고 전문) <https://www.breaknews.com/1141077>
  - 첫 한미정상회담 재평가...“한미동맹 현대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재설계” (8. 29. 금)
    - \* (특별기고 전문) <https://www.breaknews.com/1143849>

###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 1) 한국일보 칼럼기고 (2025. 8. 18. 월)
  - 국익을 지키는 한미동맹 현대화 3대 원칙
    -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410180004649?did=NA>
- 2) 중앙일보 시론기고 (2025. 8. 19. 화)
  - '강대국 정치'의 귀환, 자강과 연대로 건너자
    - \* (시론기고 전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9901>
- 3) 국방홍보원 인터뷰 (2025. 9. 4. 목)
  -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외교안보 성과와 과제

###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 1) 동아일보 기고 (2025. 9. 2. 화)
  -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세 가지 외교 성과
    - \* (기고 전문)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50902/132306903/2>
- 2) 한국일보 특별기고 (2025. 9. 18. 목)
  -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 가르나
    - \* (특별기고 전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714260003507>

### 이수훈 초빙석좌교수

- 1) 국제신문 기고 (2025. 8. 21. 목)
  - '동맹 현대화' 감당할 수 있다.
  - \* (기고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17541?sid=110>

### 권기원 초빙교수

- 1) 아주경제 칼럼기고
  - 금융기관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개선방향 (8. 12. 화)
  -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50812112157972>
  -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강제 출국의 원인과 대응 방향 (9. 26. 금)
  -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50926124949908>

### 이상만 초빙교수

- 1) 한겨레신문 인터뷰 (2025. 8. 26. 화)
  - 이 대통령 “안미경중 취할 수 없어…대중 관계 잘 관리해야”

### 최영준 초빙교수

- 1) 경북일보 인터뷰 (2025. 9. 19. 금)
  - 트럼프·시진핑, APEC 참석…경주, ‘글로벌 외교 격전지’ 급부상

### 임형신 초빙교수

- 1) 한겨레신문 인터뷰 (2025. 9. 18. 목)
  - 해군첩보부대 등 “한국 정부 훈장 수여 필요” 월미도 매장 북한군 발굴 및 송환 작업도
- 2) 인천일보 인터뷰 (2025. 9. 17. 수)
  - 인천상륙작전 최초 전사자 스웬슨을 기리며

## 3. IFES 브리프 및 포럼

### 가. IFES 브리프 (8건)

#### IFES 브리프(요약)

### 김여정 '7.28 담화'의 의미와 평가

2025. 8. 7. 정재욱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국연구센터장)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연구센터장)

김여정 담화는 이재명 신정부,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10월에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 수반들에게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 대외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 남북 및 북미관계를 봤을 때, 당장의 대화 시작이나 관계 정상화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전쟁 방지를 위한 위기관리 능력 제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대북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일정대로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책적 일관성이 요구된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정책 적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면, 국내정치적 동의 기반의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한 북미 간 협상과 관련하여 북미관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 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 IFES 브리프(요약)

###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의미와 과제

2025. 8. 27.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본연구센터장)

8월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약 17년 만에 발표했다. 합의 문서에서 양국 정상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한일관계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보·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등 양국 공통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의 설치도 합의했다.

그렇지만, 한일이 양국을 둘러싼 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공통 과 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역사문제에 관한 인 식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 간의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면서 과거 정권 이 일본과 합의한 정책의 유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일관계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처받은 상대의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국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역사인식 문제가 양국 관계 를 악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 IFES 브리프(요약)

### 트럼프 2기 미국의 국방전략과 한미동맹 현대화

2025. 9. 8.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형해화 및 대서양 동맹의 약화 등 미증유의 불확실성 시대가 도래 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나타난 미국의 국방전략지침(INDSG)과 국방전략(NDS)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미국의 작전 공간을 미 본토, 인도-태평양 및 중남미 지역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서 대중국 견제 및 미 본토 방어,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국방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조정 및 동맹 현대화 등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동맹의 작전 공간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며, 핵심축(linchpin) 한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능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비 부담 확대 및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재조정 등 미래지향적 협의를 추진하게 된다.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및 주한미군 재조정, 전시작전권 전환, 한국의 국방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 3. IFES 브리프 및 포럼

#### IFES 브리프(요약)

## 2025년 전승절과 SCO 회의에 나타난 중국 대외전략: 북·중·러 카르텔과 대안적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2025. 9. 8.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2025년 80주년 중국 전승절과 제25차 텐진 SCO 정상회의는 향후 중국 외교 전략의 양대 축을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였다. 베이징 전승절 행사는 군사력 과시와 반(反)헤게모니 담론을 결합하여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억지 신호를 발신했다. 반면 텐진 SCO 회의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와 국제공공재 공급이라는 제도적 구상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대안적 리더십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대외 전략은 군사력 시위와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북·중·러 협력은 각국의 이해관계와 국내적 제약으로 인해 공식화된 삼각동맹보다는 느슨한 공조와 사안별·분야별 협력 심화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 IFES 브리프(요약)

##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유: 남한 중심적 편견·호칭의 정치학·'내정'의 징후

2025. 9. 11.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북한 매체에서 '존귀하신'이라는 수식어는 아무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로동신문이 그런 표현을 2022년 당시 만 9세인 김주애에게 사용했다는 것은 김주애를 미래에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우고자 하는 김정은의 강력한 의지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전문가가 김주애의 후계수업 가능성에 대해 부정확한 판단을 내린 데에는 정보당국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김정은에게 2010년생 아들이 없다는 점은 김정은을 직접 만났던 외국인들의 증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2018년 4월 대화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북한 의전 체계에서 자리는 곧 권력이다. 김주애는 공개 행사에서 꾸준히 김정은의 옆, 혹은 한 발 앞에 배치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후계자로 대우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내정되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은 너무도 많다.

북한에서 권력승계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정과 후계수업 단계 → 대내적 공식화 → 대외적 공식화라는 세 단계를 거쳐 완성될 것이다. 김주애의 경우 현재 ‘내정 단계’에 있고, 적절한 시점에 ‘대내적 공식화’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 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 IFES 브리프(요약)

### 김주애 소고: 후계자 단정은 너무 이르다

2025. 9. 11. 곽길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9.3)에 김정은을 따라 방중함으로써 후계자 내정설이 급속하게 확산하였다. 과연 김주애는 김정은 후계자일까? 지난 방중은 중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 그의 위상을 각인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 외교적 행위일까? 물론 ①중국방문 등 공개 활동 다변화 추이, ②호칭, ③예우를 볼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3가지 범주들은 후계문제의 본질(essence)은 아니다. 언제든 연출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에 반해 ▲김정은·김주애 나이 ▲김정은 유고에 대비한 ‘당 제1비서’(당 총비서의 대리인) 직제 신설 ▲유교적 남존여비 문화 ▲5대 수령의 성(姓) 문제 등 10여 가지 의구점은 상식이자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학계, 정부, 언론은 성급하게 속단해서는 안 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금 우리 사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김주애 이슈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삶’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 3. IFES 브리프 및 포럼

#### IFES 브리프(요약)

##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이후 북미대화 전망

2025. 9. 15.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의 대미전략과 미국의 대북전략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비대칭성이다. 북한이 러우전쟁 발발 이후 신냉전 구도를 활용해 대러·대중 관계를 순차적으로 강화하며 북미대화 재개 상황에 대비해 왔다면, 미국은 트럼프 개인의 레토릭 중심으로 북한 문제를 관리해 왔다.

미국이 비핵화와 같은 최종 목표를 언급하지 않고 핵 개발 ‘중단’이나 ‘대응’ 등 북한의 현재 핵보유 수준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낼 경우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APEC 정상회담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10월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중·미중 정상회담과 한중·한미정상회담은 필연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 IFES 브리프(요약)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평가: 내부 정치와 남북 관계 분석 및 전략 제언

2025. 9. 25.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연구센터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부터 최초로 국기게양식(약식 신년 국기게양식 수준) 진행(벽면에도 국기가 배치), 주요 간부 주석단 등장, 국가 연주, 의안 상정의 순으로 회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변경되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가 연주되고, 국기계양식이 진행되는 등 회의 운영 방식이 변경되는 것은 단순히 회의장에서의 국기에 대한 정치적 의례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김정은 위원장을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국기, 국가의 주권을 상징하고 인민의 대표성을 가진 최고인민회의의 권능 강화, 법·제도에 근거한 국가 운영, 더 나아가 우리 국가제일주의는 수령 제일주의라는 북한의 정치담론의 제도화와 실천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은 이러한 체제 암흑기를 거쳐 오면서 자신들이 체제 생존을 위해 외부세력과 남한에게 본의 아니게 의존해 온 자신들의 자주의식, 한반도 역사의 또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존중'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상당 기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한 채 제도적, 인식적 측면에서 적대성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상황에서 남북 정상 모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북한에 대한 신중한 언행과 상호 존중의 자세, 대북 특사 파견,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핵심으로서의 대통령의 역할 제고, 한중·한러 관계의 발전, 우리 국가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 나. IFES 포럼 (3건)

### IFES 포럼(요약)

## How to Modernize How to Modernize the Korea-U.S. Alliance?

2025. 8. 18.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 3. IFES 브리프 및 포럼

---

#### IFES 포럼(요약)

## South Korean Deterrence at a Crossroads

2025. 8. 19.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핵연구센터장)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 IFES 포럼(요약)

## Designing a Peace Framework on the Korean Peninsula: Policy Recommendations

2025. 9. 23. 곽태환 前통일연구원장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 4. IFES AI 아카데미

연구소는 인공지능(AI) 시대에 AI 기술이 국제관계, 특히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AI 시대의 한반도 미래 전략”을 주제로 AI 아카데미를 개설했다.

AI 아카데미는 북한·통일문제 연구자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대비한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 일정별 강의 계획 〉

강의 일정		주 제	강 사
1강	9월 11일	AI와 저널리즘의 미래	류현정 조선비즈 콘텐츠 전략팀장
2강	9월 18일	AI 거버넌스와 국제 질서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
3강	9월 25일	AI 시대와 반도체 전략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4강	10월 16일	미중관계와 중국 AI 혁신전략과 한중관계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강	10월 23일	AI 시대 전쟁과 안보	설인호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6강	10월 30일	북한의 AI 기술 개발과 적용 현황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7강	11월 6일	AI 시대 남북관계 연구 분석의 새로운 도전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8강	11월 13일	AI 기반 남북협력과 기술 평화 구상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9강	11월 20일	AI 시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전략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0강	11월 27일	AI 관련 산업단지 현장실습	

## 가. 개강식 및 제강

○ 일시/장소: 2025. 9. 11.(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 개강식 환영인사 〉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을 요구하는 현실”이라며 “이번 AI 아카데미가 새로운 시대의 도전과 기회를 함께 성찰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주제/강사: AI와 저널리즘의 미래 / 류현정 조선비즈 콘텐츠 전략팀장

○ 주요내용: AI가 ▲뉴스 작성 ▲데이터 분석 ▲독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언론 환경 전반에 미치는 변화를 짚으며, 동시에 가짜뉴스 확산과 알고리즘 편향이라는 위험 요소를 지적하면서 “AI 시대 언론은 기술 활용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4. IFES AI 아카데미

### 나. 제2강

- 일시/장소: 2025. 9. 18.(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주제/강사: AI 거버넌스와 국제 질서 / 김명신 LG AI연구원 정책수석
- 주요내용: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이 AI 규제와 표준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설명하며, 한국은 기술 선도국이 되기보다는 규범 형성 과정에서 조정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AI는 기술 경쟁을 넘어 가치와 제도의 경쟁이 병행되는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 다. 제3강

- 일시/장소: 2025. 9. 25.(목) 19:00 / 평화관 대회의실
- 주제/강사: AI 시대와 반도체 전략 /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
- 주요내용: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와 같은 기술적 변화가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Specialty 중심으로 재편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설명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파운드리와 메모리뿐 아니라 소재·장비 분야에서도 전략적 기회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했다.



< 개강식 기념촬영 >

##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 북한

- 김정은-푸틴 전화통화 “북 러조약에 따라 모든 분야 협조관계 더욱 심화발전 의지 확인”, “미·러 정상회담 관련 정보 공유”(8.13.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8.13. 타스통신)
  - 김정은 ▲푸틴의 ‘조국해방’ 80주년 축하에 사의 ▲80년 전 ‘붉은군대 위훈’에 경의 표시 ▲북러 조약 정신에 충실할 것과 앞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굳게 확인
- 김여정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 제하 담화,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 “대한민국은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 헌법에 고착될 것”(8.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광복절 첫 공개연설 “북·러,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8.15.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광복 80주년(조국해방 80돏 경축대회) 연설에서 북러 ‘혈맹관계’ 강조
- 김정은, ‘한미연합훈련 시작일 맞춰’ 구축함 ‘최현’호 방문 “핵무장화 급진적 확대” 강조(8.19.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여정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 못 돼”, “한국 대통령, 역사의 흐름 바꿔놓을 위인 아니야”(8.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가표창수여식서 러시아 파병군 지휘관·전투원들에게 공화국영웅 칭호 직접 수여 “거대한 공적, 세계전쟁사의 사변” 주장, 한반도 정세도 평가(8.22.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신형 반항공미사일 2종 ‘전투 성능 검열 사격’ 참관, 9차 당대회 개최 전 국방과학 연구 부문이 관철해야 할 중요 사업 지시(8.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매체는 미사일총국이 개량한 신형 반항공미사일 사격을 통해 2종의 탄들이 무인기·순항 미사일 등 각이한 공중 목표 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전함.
- 김정은, 9.3. 중국 ‘전승절’ 참석 예정 ‘다자 외교무대’ 데뷔 (8.28. 중국 외교부; 8.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총참모부 특수작전훈련기지 방문, 신형저격소총 만족, “특수작전·저격수 역량 대폭 강화, 총참모부 직속 중앙저격수양성소 조직 문제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 (8.28.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러시아 파병군 유가족 만나 여러 번 고개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파병 전사자 유족, 내가 직접 거두겠다. 다시 한번 속죄”(8.3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 김정은, 새로 조업한 중요군수기업소 미사일종합생산공정 시찰(9.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중국 방문을 앞둔 8.31. 미사일 새 생산라인을 시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하달한 '미사일 생산능력 확대조성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비했다고 평가
- 김정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 방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20'형 개발 시사 "전략미사일무력 강화에서 커다란 변혁"(9.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시진핑, 6년 만에 회담 "국제정세 변해도 북·중 우호 불변"(9.5.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구성시 병원 건설장 현지지도 "지역인민들이 중앙 못지않은 선진적인 의료봉사 받게 하는 사업, 지방공업혁명과 병행한 보건혁명"(9.9.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신형 화성-20 ICBM 사용될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최종시험 참관 "핵전략무력 확대 강화 중대 변화 예고"(9.9.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9차 당대회서 핵-상용무력 병진정책 제시하게 될 것"(9.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9.11., 9.12.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 사업 지도
- 김여정 담화, 한미 '아이언 메이스' 및 '프리덤 에지' 동시 실시에 반발(9.14. 조선중앙통신; 9.15. 로동신문)
- 김정은, 무인항공기술연합체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9.19.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연설 "미국이 비핵화 철회하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 없어", "한국과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9.22.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미국 / 일본

### < 트럼프 행정부 관세전쟁 관련 >

- WP "관세협상 때 한국 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등 검토"(8.9. 워싱턴포스트; 8.10. 연합뉴스)  
- WP는 미국 정부 내부 문서 입수를 토대로 한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국가에 관세사용을 확대했다는 취지로 보도
-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8.11. 백악관; 8.12. 연합뉴스)

### < 일반사항 >

-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미군 파병은 배제, 공중 지원은 검토(8.20. 더 가디언)
- “트럼프 ‘APEC 방한’ 준비 중, 미·중 정상회담 진지하게 논의”(9.6. CNN; 9.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방한 “구금사태 유감, 재입국 불이익 없을 것”(9.14. 외교부 보도자료; 9.15. 조선일보 등)
-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9.14. 한국 외교·국방장관 등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 없다”(9.15. 한겨레)
-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9.19. 트루스소셜; 9.19.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 일본 언론 “한일 정상회담 이달 23일 전후 도쿄 개최 조율”(8.9. 아사히신문; 8.9. 연합뉴스)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11개월 만에 퇴임 의사 공식 표명(9.7. 연합뉴스)

## 중국 / 러시아

- 시진핑 연설 “평화냐 전쟁이나, 윈-윈이나 제로섬이나”, 반미 연대 메시지(9.3. 중국 외교부)
- 시진핑, 브릭스(BRICS) 화상회의서도 반미 연대 메시지 “무역·관세 전쟁, 무역규칙 훼손”(9.8.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BRICS 연설 전문)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8. 브릭스 정상 화상회의에서 “패권주의·일방주의·보호주의 매우 만연”, “일부 국가들은 무역·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국제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
- 김정은, 전승절 계기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서 ‘평화통일 포기’ 지지 요청(9.13. 교도통신 (영문판); 9.13. KBS; 9.13. 중앙일보 등)
  - 교도통신은 9.13.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9.4.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평화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 관계로 전환 한다”는 정책의 경위를 설명하며 중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구했다고 전함.
- 러시아 “중·단거리 핵전력 조약(INF) 자체 유예는 더 이상 없다” vs.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지원” 본격화(8.5. KBS)

## 5. 북한·국제 정세 동향

- 러시아 외무부 “유럽과 아·태 지역에 미국산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이 사실상 배치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어 “모라토리엄 준수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더 이상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INF)에 대한 ‘자체적·일방적 유예’ 유지를 위한 어떠한 조건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명(8.5. 타스통신)

● 푸틴 ▲“우크라이나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 협력할 준비가 돼” ▲“모스크바에서 추가 회담 진행 제안”(8.17. 타스통신; 8.17. CNN)

● 러시아 외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우크라이나-유럽 정상들 백악관 다자회의 논의에 “모스크바 없는 안보 논의는 막다른 길” 평가(8.20. 연합뉴스)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빼고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은 ‘유토피아’(실체 없는 허상)이며 ‘무의미한 길’”이라고 일축

### 한일 / 한미 / 북·중 정상회담 결과

#### ■ 한일 정상회담 결과 (2025. 8. 23.)

- 한일 정상회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 채택해 ‘셔틀외교 복원’ 공식화 (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주요내용 >

◆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안정적 발전 ◆ 이시바 총리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	
①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 셔틀외교 조기에 재개된 것 평가 ▲ 안보·경제안보 포함 각 분야에서 소통 강화
② 미래 산업분야 협력확대 및 공동과제 대응	▲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공통 직면 사회문제 대응 위한 협의체 출범
③ 인적교류 확대	▲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 확대(1회 → 2회)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교류사업 지원 등 지원
④ 한반도 평화와 북한문제 협력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 재확인 ▲ 러북 군사협력 등 함께 대처, 대화·외교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평화적 해결 ▲ 납치 문제 해결 위한 노력
⑤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공조 강화의 선순환 계속 ▲ APEC 정상회의 및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위해 상호 협력

■ 한미 정상회담 결과 (2025. 8. 26.)

- 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8.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양국 정상 모두발언 주요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무역 협상 개치지 않으나, 한국이 얻을 것은 없음.</li> <li>▲ 선박 계약 고려 중, 한국이 미국에서 직접 선박 건조 하게 할 것</li> <li>▲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장비 주요 구매국</li> <li>▲ 선거 승리 축하</li> <li>▲ 김정은 만나기를 고대, 더 나은 관계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강한 의지, 함께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제조업 분야 르네상스,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길 기대</li> <li>▲ 군사 분야에서 경제·과학기술 분야까지 확장한 미래형 한미동맹</li> <li>▲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성과 강조, 한반도 평화에서 역할 기대</li> <li>▲ 남북관계 개선 쉽지 않은 상황,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 지원 할 것</li> </ul>

■ 북·중 정상회담 결과 (2025. 9. 4.)

- 김정은-시진핑, 6년 만에 회담 “국제정세 변해도 북·중 우호 불변”(9.4.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9.5.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북·중 정상회담 결과 주요내용〉

구분	중국 발표 (9.4.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북한 발표 (9.5.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적인 북·중 친선 고도로 중시, 북·중 관계 유지·공고화·발전용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해도 이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li> <li>◆ 북·중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li> <li>◆ 전략적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전개, 북·중 공동 이익 수호</li> </ul>	
한반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북한이 자기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으며 사회주의 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지지</li> <li>▲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북한과 조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향</li> <li>▲ 북한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양측의 공동 이익과 기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유엔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의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은 국가주권·영토완전·발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당·정부의 입장과 노력을 전적으로 변함없이 지지성원</li> <li>▲ 대외관계 분야에서 두 나라 당·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인 정책적 입장에 대해 호상 통보</li> </ul>
경제 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정은은 북·중 간 호혜적인 경제·무역협력을 심화할 의향</li> </ul>	



---

# 연구소 소식

IFES 동정

언론 속의 IFES

IFES 도서관

예정사항

안내사항



# 1. IFES 동정

##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동향

○ 오현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2025. 9. 1. ~ 2026. 8. 31.)

## 나.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장, 박재규 총장 예방

○ 일시/장소: 2025년 9월 15일(월) 10:0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알렉산더 보론초프(Alexander V. Vorontso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최영준 국제협력실장



< 기념 촬영 >

## 다. 필리핀국립대학 한국학연구소 학생단 방문

○ 일자/장소: 2025년 8월 4일(월) 10:30~ / 평화관 대회의실

○ 참석자: 필리핀국립대학 한국학연구소 학생단 10여명

○ 학생단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 설명 및 질의·응답(김성경 북한대학원대 교수) ▲UNKS-IFES 홍보영상(영문) 시청 ▲도서관 북한자료실 등을 견학하였다.



〈 필리핀 국립대학 학생단 기념 촬영 〉



〈 도서관 북한자료실 견학 〉

## 라. '2025 글로벌 한마' 참가 외국인 학생단 방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8월 14일(목) 오후 2시 통일관 정산홀에서 '2025 글로벌 한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대학생 대상으로 방문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일본 3개 대학 11명 ▲중국 4개 대학 7명 ▲대만 3개 대학 6명 ▲미국 1개 대학 2명 ▲멕시코 1개 대학 1명 ▲필리핀 1개 대학 2명 등 총 6개국 13개 대학 29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박정진 특임부총장은 환영인사에서 "2025 글로벌 한마에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동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웃음, 그리고 함께 극복하는 도전들은 앞으로의 삶과 세상에 살아 숨 쉬는 귀중한 휴머니즘의 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글로벌 한마의 정신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늘 함께하기"를 당부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은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등과 기념촬영 후 최영준 국제협력실장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대 소개와 도서관 특수자료실 등을 견학하면서 2만여종의 북한 원전자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 마. 동일본국제대학교 학생단 방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8월 28일(목) 오후 2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동일본국제대학교 학생단 10명을 대상으로 방문행사를 개최했다. 연구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박재규 경남대 총장,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박정진 경남대 특임부총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등을 접견하고 준비해온 편지와 선물을 증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북한대학원대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소내 주요시설과 도서관 북한자료실 등을 견학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북한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 2만여종의 북한 원전자료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 총장·이사장 등 접견 >



< 잔디광장 기념촬영 >

## 바. 중국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장, 박재규 총장 예방 및 MOU 체결

- 일시/장소: 2025년 9월 26일(금) 15:0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참석자: 장온령(ZHANG YUNLING) 중국 산둥대 국제문제연구원장, 양연용(YANG YANLONG) 중국 산둥대 교수,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임을출 연구실장, 이형중 기획홍보실장, 모영환 행정실장, 이상만 초빙교수, 오현주 연구위원
- 내용: 박재규 총장 예방 후 양 기관은 공동 학술회의 개최, 연구진 상호 방문교류, 연구협력, 연구자료 공유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박재규 총장 예방 >



< MOU 체결 >

## 2. 언론 속의 IFES

### 가. 「북한을 읽는 도서관」 1차 프로그램 소식 통일부 블로그 게재 (2025. 8. 12.)

안녕하세요,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윤단우입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지난 7월 23일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북한 원전 자료를 전격 공개하며, 미래 세대가 북한을 직접 들여다 볼 학술과 교육의 장을 열었습니다.

#### < 주요 기사내용 >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윤단우 기자 = ‘국민 모두에게 열린 통일 연구의 문’,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은 북한 자료에 대한 높은 학술적 관심을 실질적인 연구로 연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이 같은 소중한 자료들이 특정 연구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일반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데요.

북한 자료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회원 가입 후 2만여 권의 북한 특수자료를 포함한 모든 장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대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실증 기반의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북한 인권, 경제, 사회문화 분야로 아카이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특강에 집중하고 있는 참가자들 모습  
(©윤단우 기자) >



< 도서관 내 특수자료실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들(©윤단우 기자) >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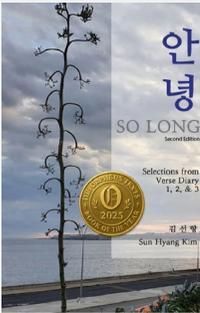


## 2. 언론 속의 IFES

### 나.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시집 '안녕',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 수상 언론보도 (2025. 8. 18.)

연합뉴스, 뉴스1,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 25개 국내 언론사에서 김선향 이사장 시집 '안녕',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 수상 내용을 보도했다.

#### < 주요 기사내용 >



(서울=연합뉴스 장영훈 기자)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이 발간한 한영 이중 언어 시집 '안녕(So Long)'이 2025년 오르페우스 텍스트 올해의 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학교 측이 18일 밝혔다.

이 책은 존 던을 연구한 영문학자로 경남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낸 김 이사장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발간한 시집 '운문일기' 1~3편 중 핵심적인 시들만 추려 발간했다.

특히 이번 시집은 국문뿐 아니라 영문학자인 김 이사장이 직접 영문으로 번역해 델러스 텍사스대학교 산하 문두스 아티움 프레스(Mundus Artium Press)에서 발간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 다. 김선향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동아일보 인터뷰 보도 (2025. 8. 18.)

#### < 주요 기사내용 >

#### “평양서 온 꽃다발...남편의 은밀한 미션, 詩로 풀었죠”

2000년 10월 5일 김선향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장은 '평양에서 온 꽃다발'이라는 제목의 시 한 수를 지었다. 한 달 전 9월 어느날 자정을 넘어 집에 들어온 '그'는 남편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주역이었던 박 총장은 이어진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하기 위해 8월 29일 평양으로 갔다. 남측 수석대표였던 그는 수행 공무원과 기자들을 평양에 남겨둔 채 몰래 밤 기차를 타고 8시간을 달려 자강도 강계로 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쟁점에 대한 담판을 지었다.

다음날 아침 수석대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수행원과 기자들은 이를 서울과 전세계에 타전했다. 당시 자택에서 보도를 들은 김 이사장의 심정은 어땠을까. 8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집무실에서 만난 김 이사장은 “언론에서는 ‘007작전’을 한다는 등 흥분했지만 나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이가 일을 하는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미션을 완수하고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담담하게 회고했다. 박 총장은 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서울로 귀환했고 평양 순안공항에서 어린 소녀에게서 받은 꽃다발을 김 이사장에게 안겼다.

박 총장은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3년 6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동아일보 특파원이던 필자를 만나 당시의 비화를 최초로 털어놓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 안 그러면 남북회담은 올스톱이다. 오히려 내가 북쪽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을 폈죠. (남북 합의대로) 개성공단을 건설하려면 경의선이 연결되고 군부대 지뢰밭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군의 반대를 핑계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남북이 한 말이) 모두 거짓말 아니냐. 나도 장관으로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붙은 겁니다.”

박 총장의 평양 담판 이야기는 남북관계사라는 공적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집에서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김 이사장의 이야기는 2012년 펴낸 자전적 시집 ‘운문일기’에 실렸다. 사적으로는 개인적인 가족사이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관계의 한 단면을 보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역사와 교직되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김선희 북한대학원대 이사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집무실에서 최근 출간한 한영시집 ‘안녕’을 들고 포즈를 취했다. (북한대학원대 제공.)



\* 김선희 북한대학원대 이사장(왼쪽)이 1일 남편 박재규 경남대 총장(전 통일부장관)의 사진이 들어간 시라크재단 분쟁방지상 수상 기념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북한대학원대 제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 2. 언론 속의 IFES

### 라. 동일본국제대 학생방문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언론보도 (2025. 8. 29.)

CNB뉴스, 뉴스프리존, 경남도민신문, 교수신문 등 9개 국내 언론사에서 동일본국제대 학생방문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결과를 보도하였다.

#### < 주요 기사내용 >

#### “동일본국제대 학생방문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



(CNB뉴스 손혜영 기자) 동일본국제대학교 학생방문단 일행이 지난 28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를 방문했다.

29일 경남대에 따르면 이날 이화정 동일본국제대 교수, 일본 학생 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극동문제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2만여 종의 북한 원전 자료와 ‘노동신문’ 등 주요 간행물을 열람하고 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의 주요 시설도 견학했다.

이어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박재규 총장과 김선희 북한대학원대 이사장, 박정진 경남대 특임부총장,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을 만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 마. 제18차 삼청포럼 결과 언론보도 (2025. 9. 15.)

연합뉴스, 문화일보, 코리아리포트, 서울평양뉴스 등 5개 국내 언론사에서 제18차 삼청포럼 결과를 보도하였다.

### < 주요 기사내용 >

### "북·중·러 군사 협력은 추측일 뿐...한미일 3각 공조와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이 노골적인 연대 장면을 연출했지만, 이들 3국이 군사 협력이나 동맹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 학자의 제언이 나왔다.

북한 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과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삼청포럼'에서 "러시아는 절대로 북한에 전략적 군사 배치를 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 3. IFES 도서관

#### 가. 북한대학원대 석·박사과정 신입생 대상 도서관 설명회

연구소는 북한대학원대 석·박사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서관 홍보영상(PPT) 시청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2만 여종의 북한원전 자료와 북한·통일관련 국내외 자료 및 연구 성과물, 국내저명 인사들의 기부자료, 연구소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도서관 이용 안내를 실시했다.



< 도서관 설명회 >

- 일시/장소: 2025. 8. 2.(토), 11:00~ /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대상: 북한대학원대 석·박사과정 신입생 22명

#### 나.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연구소는 9월 25일(목) 오후 2시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북한 특수자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북한 통일연구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2차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 프로그램에는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IFES-UNKS 홍보영상 시청 ▲북한 특강(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북한 특수자료실 및 디지털아카이브 현장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특강에서 전영선 교수는 ‘북한 영화와 드라마 특징’을 주제로 ▲북한 김정은 시대 제작한 사례(백학벌의 새봄: 2025년 제작, 하루낮 하루밤: 2022년 제작, 우리집 이야기: 2016년 제작) ▲북한 영화 드라마 제작의 시대 흐름과 변천 과정 ▲북한 원 자료를 활용한 북한·통일 인문학 논문작성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



< 기념촬영 >



< 북한 특수자료실 견학 >

## 다. 신간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3/4분기 중 신간 도서 14권을 입수하였다.



### < 주요 신간 도서 목록 >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한반도 핵무기정치: 군사적 자산 또는 외교적 부담	김계동 외	명인문화사	2025
24분 : 핵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	애니 제이콥슨	문학동네	2025
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권은민	박영사	2025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신성호	21세기북스	2025
신밀월 시대: 김정은 집권기의 러시아-북한 관계	알리나 샤라팰디노바	다해	2025

## 라.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 도서관은 연중 매일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5.8~9월중 개방서가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480권, 도서 나눔 372권

## 4. 예정사항

### 가. AI 아카데미 강좌 진행

강의 일정	주제	강사
10월 16일	미중관계와 중국 AI 혁신전략과 한중관계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0월 23일	AI 시대 전쟁과 안보	설인호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
10월 30일	북한의 AI 기술 개발과 적용 현황	최현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위원
11월 06일	AI 시대 남북관계 연구 분석의 새로운 도전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11월 13일	AI 기반 남북협력과 기술 평화 구상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1월 20일	AI 시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전략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11월 27일	AI 관련 산업단지 현장실습	

### 나. 신진전문가 연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리즈 2: 한반도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 일시/장소: 2025년 10월 23일 (목) 14:00~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주요 프로그램

- (좌장)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 (발표) 1. 미래세대의 환경 변화와 통일 담론의 재설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 미래세대 통일 의식 형성을 위한 방향: 교육 문화 미디어 전략 (박소혜 북한대학원대 연구교수)
- (토론) 박준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5명

### 다. 경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10. 29.)

○ 잭 마리나이(문더스 아티움 이사, 시인)

### 라.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학자 방문연구 (10. 19. ~ 11. 15.)

## 5. 안내사항

### 가.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 모집 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한국과 국제정치』 원고모집

1. 학술지 소개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입니다.  
2004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어 등재학술지를 유지하며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2. 투고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3. 발간일: 3/6/9/12월 말일(원고 수시접수, 투고순으로 게재 결정)
4.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최대 150매 이하)
5. 원고접수: 투고규정(원고 작성 및 제출 요강) 참고하여 작성 후,  
JAMS 온라인투고(<https://ifes.kyungnam.ac.kr/ifes/6714/subview.do>)
6. 투고자가 지불하는 기본 게재료 및 심사료는 없으며,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에만 100,000원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과 국제정치』편집실(02-3700-07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투고 바랍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투고자에게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습니다.  
논문을 게재하신 분들께는 논문집을 발송해 드립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 가입 방법

하단의 QR코드를 통해 가입신청서 제출

### 연회비

- 학생회원: 50,000원/일반회원: 70,000원/기관회원:130,000원
- 개인평생회원: 100만원 이상 / 기관평생회원: 300만원 이상
- 온라인 납부: 경남은행 / 570-07-0011980 / '경남대학교'

### 회원 혜택

- 연구소 도서관 이용(※북한자료 열람 가능)
- 연구소 주최 국내외 학술회의 초청
- 연구소 발행 연구물 및 자료 제공
- 북한 전문뉴스 웹사이트 NK Pro ([www.nknews.org/pro](http://www.nknews.org/pro)) 이용

### 가입 문의

Tel. 02-3700-072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IFES.kyungnam.ac.kr](http://IFES.kyungnam.ac.kr)  
[ifes@kyungnam.ac.kr](mailto:ifes@kyungnam.ac.kr)  
T. 02 3700 07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길2 (03053)